

# 영암형 뉴딜·대불산단 구조 다각화로 경제 살린다

### '플로팅도크' 이달 준공...친환경 레저선박 개발 추진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기지화·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영암군이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영암형 뉴딜과 대불산단 산업구조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철통 방역과 함께 신산업 육성, 기업·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대불산단은 조선산업 불황과 장기 침체에 지난 2018년 고용·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영암군은 지역 기반산업인 대불산단의 회생을 위해 중소 조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에 지속적인 투자, 경쟁력 회복에 주력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중소 조선기업들의 염원인 '플로팅도크'가 이달 말 대불산단 내 준공된다. 이는 영암군이 대불산단에 집중된 중소 조선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중소형선박 공동건조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사업'도 114억

5000만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와 기술·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또 외부 유출 이후 돌아오지 않는 조선기능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비 2억여원을 투입해 훈련장려금(월 60만원,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등 인력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 영암형 뉴딜사업으로 '친환경연료(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개발사업'을 발굴해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레저선박 개발사업이 성사되면 대불산단이 조선산업의 선두주자로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산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기지화도 진행 중이다. 이는 전남형 뉴딜인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연계한 대불산단 산업구조 다각화 사업이다. 조선업종에 치우친 대불산단의 산업구조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풍력발전 기자재 생산으로 다각화와 업종 전환을 추진, 입주업체의 재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실증 인프라가



영암군이 대불산단 산업구조 다각화, 영암형 뉴딜,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회생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대불국가산단 전경. <영암군 제공>

반 구축 및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캠핑 대중화에 따른 튜닝 수요 확대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형 자동차 기술 전환 등을 계기로 자동차 튜닝산업을 영암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친환경 선박 개발을 선두로

조선산업 활성화,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 등 영암군의 경제 시책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영암형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전동현 기자 jbh@kwangju.co.kr



신안 지도 갯벌에서 확인된 큰부리도요(오른쪽)와 개평. <신안군 제공>

## 국제보호 희귀종 '큰부리도요' 신안 갯벌서 발견...전남 처음

국제보호종이자 국내에서는 희귀하게 관찰되는 큰부리도요 1마리가 지난 5일 신안군 지도읍 갯벌에서 확인됐다. 큰부리도요는 전국적으로 1년에 1~2차례 관찰되는 매우 희귀한 종으로, 전남에서는 처음이다.

큰부리도요는 오브양 유역·바이칼호·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며, 인도차이나반도·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 등지에서 월동한다. 전세계 생존집단이 2만3000개체로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 준위협종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종이다. 서식지 훼손과 밀렵 등으로 개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경기도 시흥에서 1개체가 처음으로 관찰됐으며, 봄과 가을철 이동시기에 희귀하게 관찰되는 나그네새이다.

신안군은 다양한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매년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갯벌도립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서식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큰부리도요뿐 아니라 저어새·노랑부리백로·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종과 개평·왕눈물떼새·흑꼬리도요·큰뒷부리도요·청다리도요·노랑발도요 등 25종 1만개체의 조류가 압해도와 지도 갯벌 일대에서 확인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완도군, 조선대·고려대와 손잡고 해양치유산업 육성

### 업무협약... 교육관 활용방안 모색

완도군이 조선대·고려대와 손잡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나선다.

완도군은 10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해 조선대학교·고려대학교와 온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학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특화산업인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공동 연구 활동 및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활발한 지식·기술 교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완도군이 해양치유지구로 계획 중인 신지면에 소재한 고려대학교 청해진수련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합

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식에 이어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완도군은 지난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 등 공공시설 투자와 함께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 등 연구 개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해양치유산업연구단 운영을 통해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8월 완도군과 청년기업 활성화 및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진택(왼쪽부터) 고려대 총장, 신우철 완도군수, 민영돈 조선대 총장이 10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사진은 온라인 협약식 합성. <완도군 제공>

체결했으며, 완도군과 해양바이오산업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해수청,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섬사랑1호' 취항

### 완도 노화도 이목·당사, 이목·남성 운항

완도 노화도 이목·당사, 이목·남성(해남) 등 2개 항로를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 '섬사랑 1호'가 10일 취항했다. <사진> 지난 2000년 진수된 105t급 섬사랑1호를 대체

할 섬사랑1호는 해양수산부가 26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건조했다. 섬사랑1호는 항해속력이 12.5노트, 여객정원 50명, 총톤수 158t으로 5t 화물차 3대와 승용차 2대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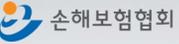
주요 운항항로는 출발지인 노화도 이목항을 비롯해 주변의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마삭도, 흑일

도, 백일도, 동화도 등이다.

목포해수청은 섬사랑1호 취항으로 낙도주민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지역 농수산물 수송 등 물류수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표 목포해수청장은 "목포해수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개 보조항로를 운영 중인 만큼 노후 여객선 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낙도지역 해상교통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